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의 음악적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송대호*

¹부경대학교 건축학과

Study of the Musical Spaces Composition in Daniel Libeskind Architecture

Dae-Ho Song^{1*}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어린 시절 습득하였던 일련의 음악 작업과 오페라 아론과 모세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여 리베스킨트 건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베스킨트는 악보 위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음계들의 구성을 그의 건축에 차용하여 보이지 않는 선들의 집합을 만들어냈다. 둘째, 음악구조에서의 2중 선율, 즉 다성음악적 비례 형태를 바탕으로 리베스킨트는 대위법(counterpunt)적 중첩의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였다. 또한, 건축과 음악과의 상호 텍스트적 결합의 결과로서 재료, 형태 등의 대비를 계획하여 하이브리드(hybrid) 즉, 다차원적인 공간구성을 계획하여 기하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선적 리듬을 표현하였다. 셋째, 리베스킨트는 과거의 아픔, 공포, 불안감 등을 공간적으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놀드 쇤베르크의 작품에서의 영감을 통해 그의 작업에서 부재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Daniel Libeskind's architecture works and the effects as a series of music works be learning in youth and opera "Aron and Mose".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Libeskind created convergence of invisible line by borrowing the composition of freely flowed scales in score from his architecture. Second, he composed geometrical shapes of contrapuntal reiteration based on double tune in music structure, in other words forms of polyphonic proportion. and he expressed the geometrically, freely line rhythm by planning composition of multidimensional spaces, "Hybrid", planning the contrast of material, form by results of Intertextually combin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Music. Third, he tried to express the pain, fear, anxiety, etc. of the past spatially, and constructed "the spaces of absence" on his works through inspiration from Arnold Schönberg's works.

Key Words : Muscial Composition, Arnold Schönberg, Spaces of Abs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술의 각 분야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감각기관이 요구되는 분야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되어왔고, 특히 건축과 음악은 물리적 외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감각적 형식을 공유하며 모방이 아닌 순수예술로서 관념적, 정신적 측면에서 영향을 끼

치고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현대건축의 큰 흐름이자 많은 담론들이 오가는 해체주의 건축은 등장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해체주의 건축에 관한 해석 대부분은 건축의 물적 형태 측면에 편중되어 있으며, 하나의 새로운 유행 혹은 경향으로 파악하는데 머물러 있다.[1] 그러나 건축은 물리적인 형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부피를 가진 실용성 있는 입방체의

*Corresponding Author : Dae-Ho Song(Pukyong National Univ.)

Tel: +82-10-7209-3503 e-mail: dhsong@pknu.ac.kr

Received December 8, 2014

Revised December 19,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결과를 공간에 구현하는 공간 예술이며, 이와 더불어 음악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음을 조직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미적 감정을 청각적으로 표출하여 그 존재를 표출한다.[2] 즉, 예술 분야에서 건축과 음악은 시간과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그 차이는 있으나 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미적 형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데리다의 해체 이론, 들뢰즈의 주름이론 등 현대철학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시도하였으며, 그의 성장배경과 학술적 지식을 건축작품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 습득하였던 음악에 대한 사고는 그의 건축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나타났고, 음악적 구성의 원리를 연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다른 예술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였다. 즉, 리베스킨트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과 음악, 상호 텍스트간의 연계로 그의 작품 속에는 예술이나 음악 작곡의 측면이 엿보인다. 이를 통해 그는 다른 건축가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건축을 계획하였고, 하이브리드(hybrid)적 현상을 야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을 분석함에 있어 그의 건축에 영향을 끼친 음악적 경험과 아놀드 쇤베르크의 해체적 음악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의 구성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현상과 더불어 근대건축이 추구하는 추상적 순수형태는 대중주의와 다원주의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들에 의해 의미와 상징성이 내포된 기호로 전환되었다.[3]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기존의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던 구조주의에서 벗어나 비정형적이고 탈구조주의적인 디자인개념을 반영한 해체주의 건축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리베스킨트는 해체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이고 비정형적인 건축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성장과정과 학술적 지식의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건축가들과는 다른 방식의 건축을 추구한 점을 볼 수 있다. 즉, 리베스킨트는 어린시절 아코디언과 연필태생을 통해 겪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케치나 건축 작품 등에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기

하학적 형태, 부재의 공간 등 지각적인 건축 형태를 구축하는 데 그의 성장과정이 많은 배경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초기 스케치 작업과 건축 작품 등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개념과 그가 습득하였던 음악적 배경과의 상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의 형성배경을 살펴본다. 즉, 그의 건축공간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그에게 영향을 끼친 해체주의 사조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리베스킨트의 성장배경 및 예술적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에서의 음악적 공간 구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전 시기의 건축들과 음악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연관성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근대 이전의 건축과 음악과의 관계, 현대건축에서의 음악과의 관계로 분류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리베스킨트의 스케치 및 건축 작업들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들에서 음악적 구성개념이 드러나는 건축공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놀드 쇤베르크 음악 작품에서의 영향에 따라 부재, 공허함 등을 그의 건축에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음악이 가지는 구조와 쇤베르크 음악의 특징이 만들어 내는 추상성을 리베스킨트 건축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2.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의 형성 배경

서구에서 20세기 후반에 들어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적인 생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반(反)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기능과 생산성 우위의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4]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용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의 전개에 따라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론과 러시아 구성주의에 공간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인 해체주의 건축이 태동하게 되었다. 해체주의는 서구 형이상학의 모든 전통, 즉 플라톤 이후 서구철학의 토대가 되어온 형이상학적 가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 해체주의 용어는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기존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발전과정의 일부분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기존에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던 형이상학적 구조와 이분법적 사유체계를 부정하였으며, 개체의 존엄성과 다중의 주체를 인정함과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구조체계를 무너뜨리고 우선순위를 부정하면서 그 구조체계를 붕괴시키고 해체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리베스킨트는 형이상학적 형태의 건축을 부정하고 모더니즘의 확일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즉, 그는 중첩, 병치 등의 해체주의 언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 사이의 예기치 못한 사건과 불안정한 형태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폴란드 우지(Lodz) 태생으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유대인들이 겪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그의 민족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트라우마나 기억 등에 관심을 가지며 유대인의 역사와 흔적에 대한 관심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그의 건축 작품에 표현하였다. 그는 “공동체가 송두리째 사멸되었거나 개인의 자유가 짓밟혔을 때, 삶의 구조 전체가 비틀리고 변형되어 삶의 연속성이 무참히 단절되어 버렸을 때 생기는 거대한 공허함을 공동(空洞)이라 부르고 건축을 통해 표현하려고 애썼다.”[6]라고 하였다. 특히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빛과 어둠의 이질적 요소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유대인의 억압된 역사와 희망을 나타내고자 의도하였다.

한편, 리베스킨트는 어려서부터 출중한 아코디언 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이스라엘 문화재단(AICF) 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었고, 1959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Tel-Aviv) 콘서트홀에서 열렸던 연주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코디언의 표현적 한계를 직시하고 피아노로 전공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이내 적응하지 못하고 음악을 그만두게 된다.[4] 이후 그는 연필 대생을 통해 음악에서 못다 이룬 재능을 표출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권유로 건축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리베스킨트가 어려서 터득한 음악가로서의 경험은 건축에서 음악구성의 원리를 연구하고 받아들이며 예술 간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고, 음계들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공간과 비재현적 성격 간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그는 건축에서 낯설고 감성적인 지각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Fig. 1]

Daniel Libeskind With America-Israel Cultural Foundation in childhood

[Fig. 2]

prize in Tel-Aviv

Source : Lee, Sun-Hye and 1 others,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Architectural Ideology of Daniel Libeskind,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3 no.4, p.51, 2011.

3. 종합예술로서 건축의 통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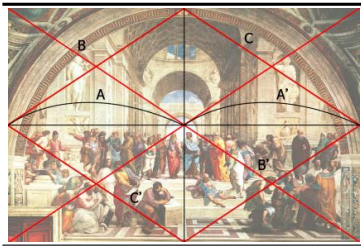
3.1 근대이전의 예술과 건축의 관계성

서양에서는 건축과 음악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져왔고, 그에 따라 이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과거 건축과 음악은 비례, 리듬 등의 구성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직접적인 지시개념이었으며, 그들의 건축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음악을 언급하였다.[7] 르네상스 시기에서 음악은 율동, 선율, 화음의 요소들이 형성하는 구조로 구성되며, 건축 또한 점, 선, 면 등의 구성요소들이 형성하는 통일, 반복, 대조 등의 미적 형식이 표현되는 공간예술이었다. 즉,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이루는 집합으로 건축과 음악은 비례, 리듬, 조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헤겔은 그의 미학이론에서 다른 예술들과 음악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징적 예술 유형인 건축은 음악과 대립적이지만 가까운 관련성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2]

일레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이러한 르네상스 시기의 우주적 조화비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고대 그리스 철학의 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특히 비례와 중심을 갖춘 회화작품을 통해 고대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주는 간단한 숫자로 정의될 수 있고 엄격한 조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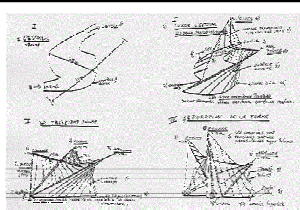
※ Length : A=A', B=B', C=C'

[Fig. 3] Proportional composition of Raphael's Academy of Athens

라파엘로는 상상 속의 이 회화를 통해 치밀한 계산아래 거대한 규모를 그려냈고 웅장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계획하였다. 즉,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건축에서는 음악 구조가 만들어내는 통일, 반복, 대조 개념을 차용하여 평·입면적으로 비례, 조화 등을 가지는 형태를 구축하였다.

3.2 근대이후 건축과 음악의 상관성

근대건축의 대표 건축가인 르 꼬르뷔제는 화가인 오장광과 더불어 입체파의 난해한 추상개념을 거부하고 일상적 사물이 가지는 순수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퓨리즘을 선언하였으며, 1920년대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를 창간하여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가졌다.[8] 특히 그는 1947년, 그리스 출신의 작곡가 이아니스 제나키스와 같이 작업하게 되면서 음악과 건축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하게 된다. 제나키스는 보다 폭넓은 수학, 건축의 개념과 법칙들을 작품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집합이론과 확률론 등의 제반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총 망라한 자기 고유의 기법으로 추계음악(Stochastic Music)을 확립하였다.[7] 이후, 그는 필립관 계획을 통해 전자음향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Fig. 4] Le Pavillon Philips Sketch(1958-59)



[Fig. 5] Le Pavillon Philips panorama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들 조화의 법칙은 음악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르네상스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8]

한편 모더니즘의 급진적 해악을 느낀 예술가들은 기존의 질서들을 거부한 비형식적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기존의 모더니즘식의 음악질서는 로고스 중심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이원적인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계적인 음계들의 구성을 추구하였고 음들 간의 질서와 그가 만드는 조성(調性)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음악적 균형, 조화, 대조, 중심성 등과 같은 데카르트식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구축하며 언어가 가지는 질서를 추구하였다. 이와 반대로 쇤베르크는 인간의 내면과 실존에 관심을 가지고 구심점이 해체된, 즉 조성 자체를 파괴하는 무조성(Atonality)의 음악을 실험하기에 이른다. 그는 12음 기법을 통해 기존에 질서들이 가지는 중력의 힘을 거부하며 이들을 해체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그동안 무시되어왔던 공포와 불안의 정동(affect)을 부각시킨다.[9] 그의 음악질서는 분열적이며,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이 가지는 기의(signified)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표(signifiant) 중심의 음들이 무질서하게 떠다니고 있다. 이는 형이상학적 사고를 부정하며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Musical Structure between Modern Music and Schnbergs's Music

Division	Modern Music	Schnbergs's Music
Philosophical Language	Metaphysical	De-constructivist
Structure of Language	Order, Dualistic Structure	Disorder, Multi-Central Structure
Centricity	Logos	None
Order of Language	Hierarchical	Divisive
Representation of Principal	Signified	Signifiant

쇤베르크는 실험적이며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연 작곡가로서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모든 기법을 집약하여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다.[10] 특히,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을 계획하는데 있어 쇤베르크의 작품인 '모세와 아론'에서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는 불안의 깊이, 어두움 등을 탐구하고 공포나 두려움 등을 건축적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리베스킨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구성 원리는 음계사이의 반복, 중첩, 대조와 같은 체계가 구축될 때 만

들어지는 내적 필연성과 관계되며[11] 이를 통해 그는 공간적 시퀀스에 의한 선적 구성, 대조적 혹은 대위법적 요소로서의 중첩, 우연성, 불안감 등의 지각적 요소를 계획하였다.

4. 음악적 구성에 따른 공간의 표현 특성

4.1 자유로운 선들의 비가시적 연결 구성

그는 그의 저서 “선들 사이(Between the Line)”를 통해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계획한 ‘빈 공간’은 지그재그의 프렉탈 형태의 극적인 좁은 길을 횡단하며 진행되는 파편으로 현재의 베를린 문화의 중심은 부유하고 있다.[12] 즉, 리베스킨트가 계획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의 선들은 유대인의 정신적 연결을 의미하며 베를린 내 유대인들의 역사 연결고리로서 역할로써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억들을 형성하는 구조들의 흔적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연관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흔적들도 간주하고 있다.



[Fig. 6] Star of David [Fig. 7] Berlin Jewish Museum's site plan

리베스킨트는 건축이 잃어버린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계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과거의 텍스트가 지워진 비가시적 부분과 그 자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13] 그는 음계들이 가지는 질서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쇤베르크의 해체적 음악에서 보이는 분열적이고 자유로운 음계들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연결을 구성하였다.

그는 한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독특한 모양의 창들 역시 베를린의 지도에서 산개되어 있는 중요한 유대인 장소들을 연결시켜주는 선들로부터 정의된 것으로 얘기한다.[14]

이러한 선들은 지그재그 형상의 매스를 구축하고 매스 사이사이를 관통하면서 내부의 의도적인 ‘빈 공간(void)’을 만들어 낸다. 즉, 리베스킨트는 음과 음이 만들어내는 선(Line)들의 뮤즈 라인을 그의 건축에 적용시키려 하였으며, 이는 곧 비가시적인 선(Line)들의 집합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는 건축적 형태 뼈대를 만들었으며 입면에도 적용시켜 내부에서 의도치 않은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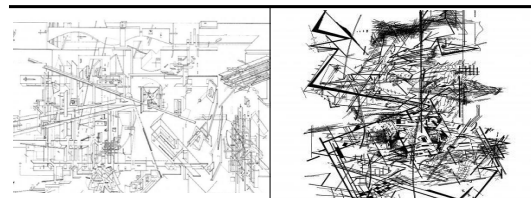


[Fig. 8] Linear Composition of Elevation in Berlin Jewish Museum

4.2 다성음악적 차원의 기하학적 형태

복합적 차원에서 음악적 시각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과 비스바덴 사무실 단지의 입면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입면 계획에서 음악적인 뮤즈 라인(Muse Line)을 계획하여 건축과 음악의 예술적 통합과 더불어 그 경계를 무너뜨렸고,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형태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그의 스케치 작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8장의 도판들로 이루어진 챔버워크(Chamber works, 1983)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음악적 구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음악적 영감을 통해 스케치를 그리고 했던 에리히 멘델존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15]



[Fig. 9] Micromegas(1979)

[Fig. 10] Chamber works(1983)

그리고 마이크로메가스(Micromegas, 1979)에서도 불규칙한 질서를 가진 사선들이 마구잡이로 중첩되고 상호

관입된 형태를 통해 도판 위에서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음악에서 대위법(counterpoint)의 요소들은 ‘선’의 형태에 결합되고 선이 복잡하게 되는 만큼 선들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게 된다.[16] 이러한 측면에서 리베스킨트는 건축에서 자유롭고 역동적인 불규칙적인 사선들의 조합을 통해 기존의 대지에서 구축되었던 것들에서 벗어나 비틀리거나 사선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매스 형태를 계획하였고 도판 위에서의 음악적 구상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시경계에서는 가늘고 긴 선형의 매스가 겹쳐지며 사선으로 기울어져 방향성에 의한 긴장감, 시각적인 무게와 방향의 균형 파괴로 공간 내의 힘의 운동을 유발하여 역동성을 발생시키고 있다.[13] 중력을 무시하며 올라간 매스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한편, 이러한 방식의 기하학적 구성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현대 유대인 박물관에서도 나타난다. 리베스킨트는 과거와 미래를 논박함에 있어 영원불변의 존재는 예측할 수 없으며 융통성 있는 혼합된 건축물이 도시 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는 이질적인 요소를 중첩시키고 극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건축과 그가 어린 시절 습득하였던 음악에 대한 상호 텍스트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로 인해 그의 건축에서는 타 예술과의 하이브리드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Fig. 11] Contemporary Jewish Museum [Fig. 12] Military History Museum

이는 이후 드레스덴에 위치한 군사역사박물관에서 발전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역사의 아픔을 기존의 군사창고 외벽과 대비되는 형태와 재료를 통해 전쟁에서 야기된 상처를 켜기(Edge)라는 구조를 통해 표면화함으로써 충격적이고 기하학적인 건물을 계획하였다.

4.3 거대한 공허함이 나타나는 부재의 공간

리베스킨트는 오페라 ‘모세와 아론’에서 나타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의 대표적 작품인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 적용시켰다. 그는 예기치 못한 공간에서 생기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솔리드(Solid)와 보이드(Void)를 대립시켜 그 공간에서 생기는 거대한 공허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유대인이 처했던 상황들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부재의 공간(Spaces of Absence)을 계획하였다.

아놀드 쇤베르크가 창시한 12음 기법은 종래의 음들간의 반복과 장식적인 구조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 이는 12개의 음을 한 번씩만 사용하는 음렬을 만들어 원형, 역행형, 전회형, 역전회형 등으로 전개되는 구성에서 나타난다.[11] 그는 기존의 모더니즘식의 위계적 구성이 아닌 중심음이 해체된 추상적인 음악 공간을 구성하였다.



Source : Lee, Sun-Hye and 1 others, *ibid*, p.54, 2011. [Fig. 13] Twelve-tone technique of Arnold Schönberg

리베스킨트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의 해체적 구조와 음악적 구성이 가지는 추상성을 더 하였으며, ‘아론과 모세’ 이야기가 가지는 상징성을 결합하였다. ‘아론과 모세’에서 중반부에 이르면 ‘모세’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오 말씀이여, 당신의 말씀이여”라고 말을 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주며 ‘아론’의 노래와 대립적 구조를 가진다.[17] ‘아론’이 떠난 빈자리에서 홀로 남은 ‘모세’는 노래를 하지 못하고 오페라가 끝을 맺게 된다. 여기서 말씀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재(Absent)를 뜻하게 되며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는 부분이나 쉽게명 석판을 깨버리는 모세를 표현할 때 음악적 구성이 추상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표현과 해석을 이끌어낸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오페라의 끝을 맺지 않음으로써 은유적인 결말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청중들에게 추상적인 상상을 하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리베스킨트는 음악 구조에서의 텅 빈 질서를 복잡하고도 난해한 이 작품

을 통해 유대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그의 건축에서 부재(Absent)의 공간으로 나타내게 된다.



[Fig. 14] Spaces of Absence in Berlin Jewish Museum

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을 통해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되어 사라져간 유대인의 아픔과 침묵을 부재이자, 베를린 공간의 빈 역사적 공간, 그리고 의도된 빈 공간, 창조를 위한 빈 공간을 계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어린 시절 습득하였던 일련의 음악 작업과 오페라 아론과 모세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여 리베스킨트 건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베스킨트는 악보 위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음계들의 구성을 그의 건축에 차용하여 보이지 않는 선들의 집합을 만들어냈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 나타나는 지그재그의 공간들은 그가 유대인들의 정신을 건축적으로 이어주고자 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입면의 선적 구성을 통해 그는 내부 공간에서 의도치 않는 빛과 어둠의 대비 공간을 체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리베스킨트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로 전이시키고자 하였으며 과거와 현재를 시공간적으로 이어주고자 하였다.

둘째, 음악구조에서의 2중 선율, 즉 다성음악적 비례 형태를 바탕으로 리베스킨트는 대위법적 중첩의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현대 유대인 박물관, 독일 드레스덴의 군사역사박물관 등의 건축 작업들과 그의 일련의 모형 작업 등에서 그는 중력을 벗어나

는 기하학적 형태와 기존 질서를 결합하여 불안하면서도ダイナミック한 공간을 조직하였다. 또한 건축과 음악과의 상호 텍스트적 결합의 결과로서 재료, 형태 등의 대비를 계획하여 하이브리드 즉, 다차원적인 공간구성을 계획하여 기하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선적 리듬을 표현하였다.

셋째, 리베스킨트는 역사적 배경에서의 아픔, 공포, 불안감 등을 공간적으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놀드 쇤베르크의 작품에서의 영감을 통해 그의 작업에서 부재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특히 아놀드 쇤베르크의 ‘아론과 모세’에서 나타난 공허함, 노래와 말의 불안정한 대비, 허무한 결말 등은 리베스킨트 건축에서 부재의 공간으로서 계획하였으며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극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음악의 구성적 차원에서 음악 내의 감정들까지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그의 건축에 적용하였다. 즉, 그는 복잡 미묘한 형태의 건축을 그려냈고 음악이 가지는 질서들을 다시 재편하여 그의 건축에 적용시켰으며 이를 통해 불안정함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빈 공간’ 즉, 부재의 공간을 구축하여 공허함, 아픔 등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Lee, Jong-Gun, Deconstruction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Bal-Un, p.12, 1999.
- [2] Lee, Mi-R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music, The Society of Korea Illustrat, vol.11, pp.141-142, 2002.
- [3] Song, Dae-Ho,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Thinking and Form Characteristics in Free-form Architectur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2 no.4, p.89, 2010.
- [4] Song, Jin-Ho, A Study on Daniel Libeskind Architecture Spatial Thinking and Design Method,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pp.13-19, 2011.
- [5] Kim, Sung-Kwang and 2 others, A Stud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6 no.6, p.110, 1990.
- [6] Daniel Libeskind, Ha, Yeon-Hee, Optimism artist, MaumSanchak, p.79, 2006.
- [7] Mun, Sung-Hun, Architecture and Music, Architecture,

- pp.55-56, 2010.
- [8] Yun, Hee-Chul, Meeting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Music, Spacetime, p.24, pp.44-45, 2005.
- [9] Park, Jong-Seo, A Psychoanalytic Exploration on the Spirituality of Music Art, Soong-sil University, Doctor's thesis, p.172, 2011.
- [10] Um, Eun-Kyung, A Study on Arnold Schönberg's *Lieder, OP.2*, Cho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p.5, 2003.
- [11] Lee, Sun-Hye and 1 others,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Architectural Ideology of Daniel Libeskind,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3 no.4, pp.51-53, 2011.
- [12] Paola Gregory, New Scape: Territories of Complexity, Time+Space, p.32, 2004.
- [13] Lee, Do-Hee, A Study on Daniel Libeskind's Architectural Contemplation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13 no.1, p.33-36, 2004.
- [14] Jung, In-Ha,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Non-representation, Acanet, p.45, 2006.
- [15] Michael Hays, Bong, Il-Bum,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spacetime, p.646, 2010.
- [16] Kim, Young-H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Architecture in the 20th Century,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5, p.20, 2000.
- [17] Seo, Jung-Eun, Religious influence of Schönberg's Musical World, Romantic Music, vol.10 no.3, pp.150-157, 1998.

송 대 호(Dae-Ho Song)

[정회원]



- 1994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1999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2000년 3월 ~ 2010년 2월 :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도시건축, 경관계획